

美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역대 최저 가산금리 (T+17bp)로 성공적으로 발행

- 상반기 유로화(14억유로)에 이어 금번에 달러화(10억불), 엔화(1,100억엔) 외평채 발행 완료 -
-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아주 낮은 가산금리로 발행 -
- 사상 최초로 한 해에 세계 3대 통화(G3통화 : 달러·유로·엔) 모두 발행 성공 -

정부는 10.23일(목), 약 17억불 규모(달러화 10억불 + 엔화 1,100억엔)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불과 2년·3년·5.25년·10년 만기 엔화 표시 채권 1,100억엔(7억불 상당)으로 나누어 발행되었다.

만기	규모	발행금리 ¹⁾	표면금리 ²⁾
5년	10억불	美 국채금리(5년물) + 17bp = 3.741%	3.625%
2년	70억엔	TONA 미드스왑 ³⁾ (2년) + 16bp = 1.065%	1.065%
3년	430억엔	TONA 미드스왑 ³⁾ (3년) + 20bp = 1.208%	1.208%
5.25년	300억엔	TONA 미드스왑 ³⁾ (5.25년) + 30bp = 1.457%	1.457%
10년	300억엔	TONA 미드스왑 ³⁾ (10년) + 46bp = 1.919%	1.919%

1) 발행금리 : 해당통화 동일만기 지표금리 + 가산금리

2) 표면금리 : 채권 소지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리(달러화 채권은 통상 0.125% 단위로 결정)

3) 미드스왑 금리 : 엔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금리, 엔화 채권의 지표 금리

이번 외평채 발행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달러화 외평채(5년물 기준)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를 경신*(美 국채 대비 +17bp)하였으며,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와 함께 직전 엔화 외평채 발행('23년) 보다 가산금리를 낮추어 발행**하였다.

* 기존 달러화 외평채 최저 가산금리(美 국채금리(5년물) 대비, bp) : +24 <'24년 발행>

** '23년 엔화 외평채 가산금리(TONA 미드스왑 대비, bp): (3년물)+23 (5년물)+33 (7년물)+43 (10년물)+48

가산금리에는 발행자(우리 정부)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되는 만큼,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는 점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와 비교하여 우리 외평채가 처음으로 10bp대의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한 것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한 차원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주요국 다른 기관의 채권과 비교*해서도 우리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낮다는 점에서도 우리 외평채가 가진 경쟁력과 한국 경제에 대한 견조한 대외 신인도를 국제 사회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 금번 외평채 5년물의 가산금리(17bp)는 우리와 신용등급이 유사한 일본 정책금융 기관의 유통금리(20bp대), 뉴질랜드 정책금융기관의 발행금리(18bp 수준)보다 낮은 수준

둘째, 최근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하였다. 상반기 14억유로에 이어 금번 발행까지 올해 총 34억불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연간 기준으로 '98년(40억불 발행) 이후 최대 규모의 발행 실적에 해당한다.

특히 금번 발행은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당초 12억불에서 35억불로 증액 편성한 국회 의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대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년 11월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05년에 발행하였던 4억불 규모 외평채)에 대응하는 상환 재원도 금번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상반기 유로화 발행에 이어 금번에 달러와 엔으로 발행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기축통화(이하 G3 통화)로 표시하는 외평채를 금년 중에 모두 발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외평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세계 3대 금융시장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도 다변화하는 의미가 있다.

넷째, 국내기업·금융기관의 외화 조달이 대체로 G3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리 등 발행 조건에 있어서는 해당 통화로 표시되는 정부 외평채를 기준(벤치마크)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성공적인 G3 통화 표시 외평채 발행이 전반적인 국내 외화 조달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4년 달러화 외평채, 상반기 유로화 외평채에 이어 금번에도 선진 채권 발행 방식인 에스에스에이(SSA) 방식*으로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우량 채권으로서의 지위를 보다 공고하게 할 수 있었다.

*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①SSA 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때에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목표 금리를 명확히 제시하여 안정적 투자를 중시하는 ②SSA 투자자가 선호 → 주된 ①발행자/②투자자 모두 SSA인 특성

한편 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을 앞두고 우리 외평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9월 뉴욕), 대면 설명회(10월 일본 동경 로드쇼) 및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콜) 등을 개최하여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 정책방향과 최근 우리 증시 호조세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우리 자본시장 매력도와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 (참고) '20년 이후 외화 외평채 발행 내역

발행시점	통화/만기	금액	발행시점	통화/만기	금액
'20년	USD 10년	6.25억달러	'23년	JPY 3년	330억엔
	EUR 5년	7억유로		JPY 5년	235억엔
'21년	USD 10년	5억달러		JPY 7년	70억엔
				JPY 10년	65억엔
	EUR 5년	7억유로	'24년	USD 5년	10억달러
'25년	EUR 5년	7억유로	AUD 5년	4.5억호주달러	
			EUR 3년	7억유로	
			EUR 7년	7억유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운 (lty703@korea.kr)

